

# 정신까지 담아낸 위대한 얼굴



조사탱, 작자미상, 한국 조선 후기, 비단채색,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 한·중·일 초상화 대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3월 14일까지

얼굴이 뜨고 있다. 인터넷상의 속어였던 잘 생긴 얼굴이라는 뜻의 '얼짱'이 사회전반에 통용되고 있으며, 그 열풍은 옛 선조들의 초상화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형상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 내면의 정신까지 담는 전신사조(傳信寫照). 동양 초상화가 추구했던 전신사조의 실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형전시 '위대한 얼굴-한·중·일 초상화 대전'(3월 1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한·일 고승초상화 15점도 출품돼 눈길을 끈다.



### 한국 단아한 격조미

윤두서 <자화상>  
18세기, 국보 240호,  
해남 개인 소장



### 중국 화려하고 섬세

왕씨선세초상,  
중국 청말~20세기초,  
한국 개인 소장



### 일본 변형과 과장법

도보쿠거사상,  
일본 에도시대,  
호쿠오카시  
박물관 소장

국보급 한국 초상화 36점과 중국 명·청대 관료들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 56점, 일본 후쿠오카시박물관 등이 소장한 초상화 10점 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단연 국보 240호 윤두서(1668~1715) 자화상. 눈꼬리를 매섭게 치켜 올리고 흑백이 분명한 광채 서린 눈빛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킨다.

또한 미간에 살짝 표시되어 있는 안경자국과 좌우로 험차게 뻗은 수염은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당시대(조선)의 사실주의적 초상화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조적 기법을 사용해 인물내면과 외면의 상호대립적인 요소를 병존시켰다.

옛 선조들에게 초상화는 인물을 화폭에 담아 실물과 같이 소중히 다루는 그림이었다. 또한 조상숭배의식을 위한 그림이었기에 서민보다는 제왕이나 성현, 충신, 효부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한국의 초상화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단아하고 격조 있게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대상 인물의 표현에만 치중해 참배자의 시선을 빼앗을만한 요인을 모두 제거했다. 이 점은 삼국의 공통적인 초상화기법으로 인물의 모습뿐 아니라 인격이나 기질, 품위 등 성정을 담은 전신사조의 기본 틀 아래 한국 초상화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밖에 보물 594호 '최명직 초상'과 '주도복상' 중국 고대부터 명대까지 위인 220명과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시습 4명의 한국인물을 담은 '역대오상화첩' 등이 선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승상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초의선사 초상'과 지공·나옹·무학 화상의 '삼화상 진영' 직지사의 '조사탱' 등 조선시대의 승상이 바로 그것.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승상은 억불승우 정책을 피던 조선조 때에도 성행했다. 그러나 대부분 화폭 하나에 한 인물만 그릴 뿐 군상형식으로 그려진 것은 대홍사와 직지사의 '조사탱' 몇 점에 불과해 이번에 전시된 조사탱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조사탱은 사찰의 계보와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취세나 의복, 얼굴형용 등은 일괄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일본 초상화는 기하학적이다. 중국이나 한국 초상화와는 달리 인물의 기질과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 변형과 과장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선종(禪宗)은 무사 계급의 후원을 받아 성행했기에 친조(眞相)라고 불리는 승상이 발달했다. 대표적인 친조로써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와 승리를 이끈 '도보쿠거사상'과 일본 진언종(眞言宗)의 개조인 '구카이상' 등이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원호 스님과 의상 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화첩 '화엄종조사화권'도 흥미롭다.

중국대 미술사학과 정우택 교수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화엄종조사화권'은 의상 대사의 부처사 창건 설화 및 선묘공주와의 만남, 원호 대사의 당나라 유학길의 해탈사건 등이 총6권으로 그려진 두루마리형식의 그림"이라며 "일본에서 제작되었으나 인물, 복식 등에서 중국 회화 표현이 선보여 고려시대의 회화경향을 짐작케 해주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밖에 '소에이코 구로다 다다유키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軍師)인 '구로다 조스이상' 등 고위층의 초상화는 개인적인 면모보다는 신분표현에 더 치중해 형식화된 느낌이 강하다.

중국의 초상화는 한마디로 화려하다. 인물뿐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 배경에 놓인 가구까지 섬세하고 화려하게 묘사돼 있다. 이런 표현기법은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개인적 기호 등을 그림에 투영시키기 위해 사용됐다.

특히 '왕씨선세초상'은 남자 7명, 여자 8명의 초상을 군상으로 그린 작품으로 지문공(志文公) 왕부부(汪敷武)의 진용(眞容)에 대한 찬문과 삼대에 걸친 가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 제발(題跋)이 적혀져 있다. 인물들은 얼굴의 굴곡과 주름을 선묘로 표현하고 명암으로 미화시켰으며, 의복 역시 주름선을 뚜렷히 표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중국 청대의 '정정공 초상'과 '문인초상화첩' 등의 작품들과 분묘에서 출토된 원·명대의 중국 복식 19점이 전시된다. (02)730-4931-3

김은경 기자 ijock@buddhapia.com



화엄종조사화권(강의하는 의상스님), 영인본, 일본 국보

#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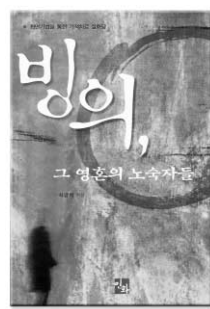
##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목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목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월 넷째주 (화~금) ◇ 강의장소: 부산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저자 법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지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알립니다.  
강북구 수유리에 동방파동연구소 서울 사무실을 개원하였습니다.  
☎ 02)996-6156